

# 푸드테크 선도도시, 한 걸음 더

### 익산시, 에이치엔노바텍과 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협약... 100억원 투자 계획

익산시가 푸드테크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푸드테크 산단으로 조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4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양희 (주)에이치엔노바텍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에이치엔노바텍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6.611㎡ (약 2,000평) 면적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2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주)에이치엔노바텍은 해조류를 활용해 대체육류 소재를 개발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2020년(법인기준) 설립됐다. 대체 카카오를 비롯해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에서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는 대체육 향미 소재인 '아미노산 복합체(ACOM-S)' 등을 개발했다.

아미노산 복합체에는 고기 맛을 내는 핵심 인자가 다량 함유돼 있어 화학 첨가제 없이도 고기의 맛을 결정할 수 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다양한 육류의 맛과 향 조절이 가능해 대체육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해양수산 사업을 이끌 유망 기업으로 인정받아 2022년 해양수산부 예비 오션스타 기업에 선정됐고, 농식품 분야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

술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에이(A)-벤처스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양희 대표이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푸드테크 식품산단이라는 점이 우리 기업의 방향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며 "식품기업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시설과 익산시의 지원 혜택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이끌 푸드테크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역 서측 역골 주차장 일원에 벽화가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 벽화로 시민 · 관광객 눈길 사로잡아

### 익산역골 주차장 일원, 역사문화도시 · 국제철도도시 상징하는 벽화

익산역 서측 역골 주차장 일원에 벽화가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벽화조성은 익산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코레일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벽화 디자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주요 디자인으로는 △익산의 주요 문화 관광지인 미륵사지 △춘포역 등 익산의 사계절 △이제는 사라진 통일호, 비둘기호 등이 선전돼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담았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승차권'과

미래의 기차 은하철도 KTX 999' 등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 철도 도시를 이미지화했다.

익산시는 벽화조성을 통해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도보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익산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벽화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문화도시와 국제철도도시에 걸맞은 이미지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신원식 군산부시장, 현장방문서 교육현안 챙겨

### 교육발전진흥재단 · 평생학습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장 살펴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14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 평생학습관 현장을 방문해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부시장은 먼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지역대학 고등학생 학과체험과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동 지원 등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이향근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경쟁력은 지역의 교육력에 있음을 공감하고, 지역 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자리를 옮긴 신 부시장은 군산시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평생학습관의 열띤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이 자리에서는 담당자들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 시민들이 평생학

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부시장은 "유아 · 돌봄부터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까지 지역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 10팀 모집

익산시가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를 돕는다.

시는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 10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익산청년시청과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협업해 진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연계형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기능 구현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제작을 위한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비즈니스 교육 및 멘토링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별도 평가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으로 1팀을 선정해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의

2억 원 상당 직접 투자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추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익산에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전국 만 18~39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 분야 창업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확대 추진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총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 환경친화형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군산쌀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 및 브랜드 가치 향상 △향후 친환경 인공관행농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친환경 면적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그간 친환경 재배단지(10ha이상) 및 인근 관행 벼 생산 단지를 대상으로 1ha당 75만원 한도로 방제 약제 및 방제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벼 친환경 재배단지 및 육산면 · 서수면을 시범연구단지로 선정하여 친환경 방제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지는 1회 방제기준 1ha당 25만

원 한도로 2회 방제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방제 비용은 농가 부담으로 진행한다.

또한 약제 선정 · 구입 및 방제일시 · 방법 · 단가 등은 신청 · 접수 후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 및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결정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벼 친환경 재배단지는 신청 · 접수를 완료했으며, 시범연구단지인 육산면 · 서수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3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을 하면 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원 단가는 1회 방제기준 1ha당 25만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전국 단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S)등급을 받아 국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개소한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중장년의 성공 창업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기준 △매출 70억 원 △신규고용 28명 △정부공모사업 선정 16건 △예비창업자 109명 발굴 △교육 및 네트워킹 29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효선 센터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중장년 창업자와 익산시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젊은 기업이 육성 '청년기업 인증' 접수

군산시는 젊은 기업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사업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 △소유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31일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